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2. 6. 7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친환경연구과장	송정흡 ☎ 760-7210
		농업환경연구팀장	김유경 ☎ 760-7231
		홍보담당자	고희열 ☎ 760-7512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“제주 소면적 작물”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 추진

- '25년까지 섬쭉부쟁이, 레몬, 망고, 브로콜리, 유채 등 5개 작물 목표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허종민)은 공익직불제 지원을 위해 비료사용 기준이 없는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,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,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-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, 이행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비료 관리를 해야 한다.
- 현재까지 146 작물은 비료사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「비료사용 처방서」 발급이 가능하지만, 기준 미설정 작물은 유사작물 처방 등 임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우선 섬쭉부쟁이, 레몬, 망고, 브로콜리 그리고 유채나물 5개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

- 주요 내용은 5개 작물 재배 농가의 토양 화학성, 생산량과 비료 사용량 실태를 조사한 후 포장시험을 통해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.
- 지난해 섬썩부쟁이와 레몬 농가에 대한 재배토양을 검정한 결과 유효인산과 교환성칼륨 함량이 모두 적정범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정 비료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2025년까지 이들 작물에 대한 시험이 연차별로 완료되면,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여 「비료사용 처방서」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- 본 연구를 통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업인의 공익직불제 참여가 가능하고, 나아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.
- 김유경 농업환경연구팀장은 “농업인의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